

멈췄던 제주의항 방제대응센터 공사 재개

6월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중단... 최근 환경보전방안 승인
제주환경운동연합 “연내 후속 행정절차 반드시 뒤따라야”

매립지 용도 무단 변경으로 중지됐던 제주의항의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가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친수시설인 해양공원 면적을 1만7092㎡에서 1만4697㎡로 줄이고, 줄인 만큼을 지원시설인 방제대응센터 부지(2395㎡)로 새로 두는 내용이다.

세부 방안에는 방제대응센터 담

장(울타리)을 없애고 회의실·주차장·화장실 등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 안에는 녹지공간을 넓혀 공원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디자인을 도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의항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두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부지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그 후 해양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 해양한

경공단과 함께 협의를 거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 승인했다.

제주도는 중지됐던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하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도서를 조속히 마련해 제주의항 2단계 토지이용계획을 연내에 정상화할 방침이다.

제주의항 2단계 해양공원 부지와 현재 공사 중인 잡화부두 배면에 계획된 해양공원도 차질 없이 조성한다. 내측수로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제주의항 일대 해양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그간 우리 단체가 제기해 온 제주의항 사업부

지 내 명시된 해양친수공간(해양공원)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없이 업무시설 부지로 바꾼 절차적 하자를 제주도가 인정하고 보완에 나선 것”이라며 “절차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지만 연내 후속 행정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해양공원 부지가 도시관리계획 상 업무용 지원시설로 잘못 고시된 만큼 도가 스스로 밝힌 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는 변경 고시를 포함해 연내에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이번 방안으로 해양공원 면적이 축소된 만큼 당초 주민에게 약속했던 해양친수공간이 온전히 회복·확대되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소형·오소백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서귀포시 40곳·1만4000여 세대 대상 시행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서의 종이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주택 40개 단지·1만4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종이팩 분리배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이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이뤄지는 공동주택이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고품

질 펄프로 재활용 돼 화장지 등 새로운 제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배출한 종이팩 수거량은 2023년 4만6807kg, 2024년 5만769kg, 2025년 4만8469kg이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일반 3만169kg과 멸균 4678kg 등 3만4847kg을 수거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종이팩 배출·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제도와 분리배출 방법을 10월부터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귀포시 누리집, SNS 등을 활용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재활용도움센터 등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선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분주한 어판장 17일 제주시수협 어판장에서 어민들이 밤사이 잡아올린 싱싱한 전갱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영토평포 낙수 상황
CCTV로 실시간 확인

서귀포시는 영토평공원 내에 영토평포 실시간 낙수 확인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방문객이 폭포의 낙수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기존 남측 전망대에 사업비 200만원을 투입해 실시간 CCTV를 설치했다. 현재 시험 운영 중으로 해당 영상은 오는 9월 말부터 서귀포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안전→재난안전 CCTV 보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 가족돌봄아동·청년 선제 발굴·지원
9~10월 돌봄 부담 대상자 조사... 맞춤형 지원 연계

서귀포시는 9~10월 2개월간,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 및 취업,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시는 가족돌봄청년 위기군 데이터를 추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534가구·1038명에 대한 조사가 나선다.

가족돌봄청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정신질환자 및 최근 1년 이내 중증수술자, 산정특례자 등 의료위기자 등 39세 이하의 가구 구성원이다.

시는 1차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굴 대상자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로 해당 명단을 통보한다. 읍·면·동에서 2차로 가구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일상돌봄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제주청년미래센터(제주도 공모 중)와 연계해 상담·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백금탁기자

가을 정취 가득한 쇠소깍... 제22회 축제 19일 개막

하효향 일원서 이틀간 공연·가요제... 보물찾기 등 체험행사도 풍성

‘제22회 쇠소깍축제’가 19~20일 하효향과 쇠소깍 일원에서 열린다.

효돈동연합청년회는 개막일인 19일 여자팔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페스티벌, 길트기 공연을 이어간다. 초청가수 문희경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로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에는 쇠소깍 음악제와 가요제, 초청가수 클레오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과 남

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쇠소깍 가요제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축제로 운영된다.

방문객을 위한 하효향 보물찾기, 여자팔씨름대회, 림보 등 현장 참여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루인형 만

들기, 풍선 터뜨리기, 야구공 던지기, 어린이 야외수영장, 황토길 걷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차려진다. 또 ‘사진으로 보는 효돈동 이야기’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도 준비된다. 하효어촌계와 연계한 ‘하효해녀의 밥상마켓’에서는 소라를 대표메뉴로 선보이며, 해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음식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산림재난 대응 핵심통로 지방임도 확충

제주시가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핵심 기반시설인 지방임도 신설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비 4억원(국비 1억4000만원, 지방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임도 2.15km를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방임도 신설로 산림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림 보호와 복원, 자원 관리의 효율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에 앞서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수차례의 현장 답사와 임도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구좌읍 덕천리 북오름 인근과 조천읍 선흘리 웃밤오름 인근에 임도 신설 구간을 확정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010-4450-4316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